

2) 사람은 근본에서 휴머니즘을 실천할 능력이 크지 않습니다. 그럴 능력이 컸다면 휴머니즘 중에서 가장 극단적인 휴머니즘이라 할 수 있는 공산주의가 실패하지 않았겠지요. 인간이 왜 휴머니즘을 실천할 능력이 없는지는 여기서 일일이 설명하지 않아도 되겠지요. 공산주의와 대척점이라 할 자본주의 체제에서도 가난한 자들이 계속 나온다는 사실만으로 그 설명은 충분할 겁니다. 오해는 마십시오. 우리에게 능력이 없으니가 가난한 자들을 돕는 일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게 아닙니다. 오늘 이 시대의 문제는 가난한 자들을 도와야 한다는 당위를 근거로 인간의 종교성을 부정한다는 것입니다. 속된 표현으로 교회에 다닌다고 밥이 나와 쌀이 나와, 그 시간에 돈을 버는 게 차라리 낫지, 하는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기도는 무슨 기도야, 그 시간에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야지, 하는 말도 할 수 있습니다. 향유를 삼백 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자들을 도와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여자를 책망한 사람들과 비슷한 태도입니다. 예수께서 광야에서 사탄의 유혹을 받을 때 들은 '돌로 빵을 만들라.'라는 주장과도 비슷합니다. 이 사람들이 속으로는 '저 향유를 나에게 주면 오죽 좋겠나.' 하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3) 세상살이로 바쁘게 어떻게 장례를 준비하나, 그건 실제로 죽을 때 처리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우리의 일상이 바쁘면 얼마나 바쁘니까. 무엇으로 바쁘세요. 호스피스에 들어간 분들의 일상은 꽃을 보고 차를 마시고 정원을 걷는 일상으로 충만합니다. 제가 부러워하는 수도원 수도승들의 일상은 어떻겠습니까. 그들의 삶에 루틴으로 이어지는 일상이 표면적으로는 한가한 듯이 보이나 실제로는 치열합니다. 근본적으로 우리의 일상은 죽음과 분리된 게 아닙니다. 여러분도 다 느끼시겠지만 이미 죽음이 우리의 일상 안에 깊이 들어와 있습니다. 일상을 치열하게 산다는 말은 곧 죽음과 매 순간 대면한다는 뜻입니다. 그런 대면 없이 일상의 과잉에 떨어지는 건 인간다움을 상실하는 지름길입니다.

4) 저는 향유를 손에 든 여자가 어떤 심정으로 예수 일행의 식사 자리에 왔을 지를 앞에서 부분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상기해보십시오. 이 여자는 오늘 처음 예수님을 만나러 온 게 아니라 이미 이전부터 예수님을 잘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녀가 마르다의 동생 마리아라는 요한복음의 보도는 충분히 개연성이 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를 제거할 기회를 엿보았고, 유다는 예수를 배신할 각오를 다지고 있었으며, 다른 제자들은 고난과 십자가 죽음에 관한 예수님의 예고를 허투루 들었습니다. 이 여자만 달랐습니다. 그녀만 영혼이 깨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의 죽음 앞에서 두려움과 떨림으로, 그리고 설렘으로 향유를 들고 집을 나섰습니다.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한 유일한 사람으로 복음서에 기록되었습니다.

# 서울샘터 교회주보

시작일 2008년 12월7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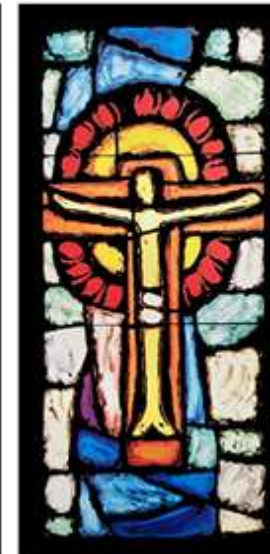
2024년 3월31일

부활 주일  
세계 교회력 「나」해 18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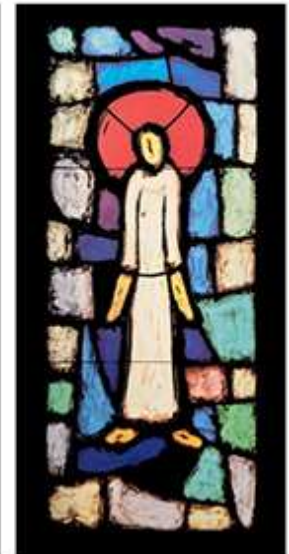
아기 예수의 탄생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부활하신 예수



고(故) 이남규 화백이 서울 논현동성당 유리창에 그린 '예수님의 일생'이라는 제목의 그림이다. 서울대교구 성 미술 담당 정웅모 신부는 아래와 같은 설명을 곁들였다. "화창한 봄날에 핀 꽃들은 흑독한 거울을 건디며 이긴 식물의 아름다운 부활처럼 보인다. 어디 흐드러진 꽃뿐이랴. 온 천지가 주님의 부활을 함께 기뻐하며 생명의 물결로 출렁거린다. 십자가의 죽음을 물리치고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우리도 부활의 삶을 가꾸도록 초대하신다. 주님의 부활에 동참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분께서 가꾸셨던 삶을 바라보고 본받는 것이다." (출처: 가톨릭신문 2021년 3월30일)

예배 장소: 서울 동작구 여의대방로 53(대방동)여성플라자 4층 아트컬리지5

주일 공동예배: 4시-5시/친교 5시-5시20분/예배 후 모임 5시20분-6시

목사: 정용섭, 박재진, 김동호

홈페이지: <http://dabia.net/xo/churchs>

# 주 일 공 동 예 배 순 서

## 개 회 예 전

### 예배의 부름 ... 인도자

표면적으로만 보면 일상과 사계절이 똑같이 반복되나/ 생명의 심연에서 보면 모든 사물과 모든 순간은 늘 새롭습니다. 부활은 가장 새로운 종말론적 생명 사건입니다. 그 생명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미리 당겨져서 발생했으니 우리 모두 기뻐함이 마땅합니다.

\*찬송 167장 (즐겁도다 이 날) ... 다 함께

\*공동기도 ... 다 함께

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으며/ 지금도 신비로운 능력으로 통치하시고 마지막 때 권능으로 완성하실 하나님, 우리와 세상 모든 것의 유일한 미래이신 하나님만이/ 성경이 가리키는 만물의 주(主)이심을 믿습니다.

주이신 하나님은 외아들을 세상에 보내시어/ 고난과 십자가 죽음을 감당하게 하셨으며, 죽은 자로부터 부활에 이르게 하심으로써/ 우리로 시련과 절망과 허무 가운데서도/ 기쁨과 평화와 희망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그 생명 사건만이/ 우리 삶의 궁극적인 미래라는 사실을 믿습니다.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의 낮은 자리에 오셨으며, 십자가에 달리셨으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영광찬송 「국악찬송」 4장 (영광 누리소서) 이은영 곡 ... 다 함께

국거리 Eb Cm/Eb Gm/D Cm Fm Bb Eb Eb/D

만 왕 의 - 왕 우 리 구 주 태 초 부터 영 - 원 까지

B Bb Bb7 Eb Fm A# Eb

영 광 영 광 누 리 소 서 - 아 - - 멘

## [ 알리는 말씀 ]

\* 부활절을 맞아서 구운 달걀과 떡을 간식으로 준비했습니다. 잠시 친교를 나누다 가시기 바랍니다.

\* 오늘 회장은 렘브란트의 <엠마오의 식사>입니다.

\* 친교 후에 오늘의 설교를 주제로 공부모임이 있습니다.

\* 다음 주일(4월 7일)은 정목사님께서 예배와 성찬식을 인도하십니다. 목사님의 개인 일정상 전교우 식사는 없습니다.

\* 지난주일(3월24일) 헌금: 250,000원

- 주일헌금 130,000원 통장헌금 120,000원

. 교회 온라인 통장: 국민은행 659002-04-033967 양혜선

\* 2024년 4월 예배 위원

날짜	설교	사회/성경봉독	헌금안내	준비위원
4월7일	정용섭 목사	김기범 집사/ 윤동희 집사	양혜선 집사 이기령 집사	양혜선, 이기령 <시청각실>
4월14일	김동호 목사	김용성 집사	양혜선 집사 이기령 집사	양혜선, 이유선 <시청각실>
4월21일	박재진 목사	이유선 집사	양혜선 집사 이기령 집사	양혜선, 김희란 <시청각실>
4월28일	김동호 목사	최선아 집사	양혜선 집사 이기령 집사	양혜선, 윤혜정 <아트컬리지5>

## 지난주일(3월24일) 설교 발췌

제목: 향유를 손에 든 여자 (막 14:1-11)

1)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당대의 엘리트이고 지식인이며 주류에 속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인격과 교양과 종교성을 인정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흥계를 꾸몄다고 본문은 말합니다. 사기꾼들만이 아니라 그럭저럭 괜찮은 사람들이나 고품격의 사람들도 역시 '흥계'를 꾸밀 수 있습니다. 흥계는 교묘하게 작동하기에 다른 사람은 물론이고 자기 자신도 잘 느끼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국내외 정치 무대에서는 그런 흥계가 노골적으로 일어납니다. 정치 목표만 달성할 수 있다면 수단은 아무 문제도 삼지 않는 겁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유대교의 근간을 위협에 빠뜨릴지 모를 예수를 제거하는 것이 바로 유대교를 지키는 일이며, 또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예수가 결국 십자가에 처형당한 뒤에 그들은 하나님께 감사 제사를 지내지 않았을까요?

## 봉 헌 과 친 교 예 전

신앙고백 사도신경 ... 다 함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헌금 160장 (무덤에 머물러) 1, 2절 ... 다 함께

중보기도 ... 목사

찬송(주기도) ... 다 함께 (\* 악보 별지 참조)

알림 ... 목사

## 파 송 예 전

\*마침 찬송 160장 (무덤에 머물러) 3절 ... 다 함께

\*위탁의 말씀 ... 목사

이제 2024년도 부활 주일 공동예배가 끝났으니 각자의 일상으로 흠어들어주시요.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간다는 게 무슨 뜻인지를 깊이 살피고 거기에 합당한 능력을 덧입도록 최선을 다하십시오.

\*축복기도 ... 목사

\*후주 ... 반주자

\*죄의 고백 ... 다 함께

사랑이 끝없으신 주님, 우리는 부활 생명을 약속으로 받은 사람들인데도/ 여전히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걱정에서 사로잡힐 때가 많습니다. 세상의 헛된 유혹과 강요에 적당히 길든 채/ 하나님의 생명 충만하고 놀라운 능력을 외면했습니다.

\*자비의 기도 ... 다 함께

목사: 사랑과 긍휼함이 충만하신 하나님께(시 145:9) 자비를 구합니다.

회중: (기도하는 마음으로 아래의 찬송가를 부른다.)

간절하게 이강민

주 - 여 자 비 를 베 풀 어 주 소 서 그리스도 여 자 비 를  
베 풀 어 주 소 서 주 - - - 여 자 - 비 - 를 베 풀 어 주 소 서

\*사죄 선포

목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용서하셨으니 여러분도 이웃의 잘못을 용서하십시오.

함께: 아멘!

\*거룩 찬송 「한국교회와 리마예식서」(상투스) ... 다 함께

거 룩 하 - 시 다 거 룩 하 - 시 다 거 룩 하 시 도 - 다  
만 군 의 주 하 - 나 님 하 늘 과 땅 - 에 가 - 득 한 그 영 광  
높 은 데 에 호 - 산 - - - 나 주 의 이 름 으 로 오 시 는 이 - 여  
찬 양 받 으 소 - 서 높 은 데 에 호 - 산 - - - 나

\*평화 인사 ... 다 함께

목사: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회중: 또한 목사님과도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찬송 「국악 찬송」 92장 (예수님 부활했네) ... 다 함께

John of Damascus (8세기)

문성모

국거리



말씀 예전

설교전 기도 ... 다 함께

복된 말씀으로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 구약의 선지자들과 신약의 사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은/ 우리를 근본에서 살리는 생명의 양식입니다. 말씀이 임하고 선포되는 이 시간에 악한 영은 틈타지 않고, 오직 진리의 영이신 성령만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첫째 말씀 이사야 25:6-9 ... 윤혜정 집사

성시 교독 시편 118:1-2, 14-24 (새로운 예배 시편 번역) ... 다 함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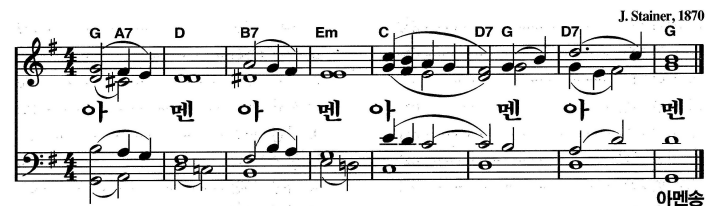
거룩하신 주하나님 어지시고 어지시다 인자하신 주님사랑 영원무궁 하시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리높여 노래하라 영원하신 그분사랑 소리높여 찬양하라  
나의주님 나의능력 나의주님 나의찬송 나의주님 언제든지 나의구원 되시었네  
-의로운자 장막에서 들려오는 환호소리 그함성을 들어보니 바로이런 내용일세  
우리주님 오른손이 그의권능 보이셨다 우리주님 오른손이 하늘높이 치켜들리  
-우리주님 오른손이 그의권능 보이셨다 그가행한 모든일을 널리널리 알리리라  
내가살아 있는동안 주님권능 선포하며 우리주님 행하신일 널리증거 할것이라  
-정의의문 활짝열라 의인들은 들어가서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의권능 찬양하리  
놀랍도다 주님께서 모소하신 그모든일 우리눈엔 신비롭고 기쁨충만 할뿐이라  
-바로이날 주님께서 놀라운일 행했으니 즐겁도다 우리모두 한맘으로 기뻐하자

둘째 말씀 사도행전 10:34-43 ... 윤혜정 집사

\*셋째 말씀 마가복음 16:1-8 ... 윤혜정 집사

\*응답 찬송 644장 (아멘) ... 다 함께

J. Stainer, 1870



설교 예수 부활의 첫 증인들 ... 박재진 목사

설교 후 기도 ... 설교자

찬송 172장 (사망을 이긴 주) ... 다 함께